
2023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

근거 :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(2019~2023)

2023. 3.



농림축산식품부
식량산업과

순 서

I. 계획의 수립 배경	1
II. 추진실적 및 보완 필요사항	2
III.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	7
IV. 2023년 과제별 추진계획	8
V. 추진 일정	13
[참고]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요약	14

1 수립 배경

-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」 수립
(‘19.6월)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필요

- (법적근거)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— <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> —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쌀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*를 **활성화**하는 동시에 HMR, 글루텐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

*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(kg) : (‘90) 119.6 → (‘21) 56.9

- 반면,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, 신시장 창출 등의 **혁신성장 동력 부족**
-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·인력 양성·투자 확대 등 **산업혁신 기반을 강화**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유망 품목 발굴, 유통채널 확충 등 쌀 가공식품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**확대**하여 쌀 소비 활성화 필요

2 추진 경과

- (‘11.11월) 쌀가공산업법 제정(‘12.5월 시행)
- (‘14.10월) 제1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14~‘18)
- (‘19.6월) 제2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19~‘22)

1 2022년 추진실적

[미래 유망분야 발굴 · 지원]

□ '규제 개선 모니터링반' 운영('19년~)으로 쌀가공업체 현장 애로 대응(계속)

-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*,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기간 부여** 등 쌀가공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 지원 추진(4건 중 2건 개선 진행)

*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위한 법률 개정(부가가치세법 제42조) 추진('23~)

** 식약처 식품기준과 행정조치('22.8) :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제도기간 부여('23.1~12월)

□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쌀 가공식품(가공밥, 쌀음료 등) 수출액 증가

- 미국·호주는 가공밥, 중국은 쌀과자, 일본은 떡류·전통주(막걸리 등), 신남방(베트남 등)은 쌀음료를 중심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* 확대

* 쌀 가공식품 수출액 : ('21) 164,011천\$ → ('22p) 180,605 (전년 比 10.1% ↑)

가공밥(75백만\$, 전년 比 31.5% ↑), 쌀음료(13백만\$, 5.3% ↑), 쌀과자(6백만\$, 4.5% ↑)

- 해외인증(글루텐프리, 비건 등) 등록·취득* 및 수출 상담** 지원, 쌀 가공식품 공동브랜드(Korecipe) 주력상품 발굴 등 쌀 가공식품 맞춤형 수출 지원

* 쌀(글루텐프리 1건, USDA 유기농 1건, 비건 2건), 쌀가공식품(글루텐프리 4건, 비건 6건)

** 온라인 수출상담회(16개사 참여), K-Food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(24개사 참여)

- 쌀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·외 시장동향 조사 추진(13건)

* 글루텐프리식품 시장, 주요국(미·중·일) 대상 쌀 가공식품 수출 품목, 시장현황 등

□ 쌀 용도별 품질평가·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(농진청)

- 가루쌀의 유산균 발효소재 가공특성 파악, 저장 중 품질유지 기술 개발
- 기존 쌀 유산발효공정을 적용한 고품질 발효물 소재화 기술 개발

- 품질 유지기술 개발을 위한 지질 특성 및 산화안정성 평가(성균관대)
- * 일반쌀 대비 조지방 함량 1.5배 ↑, 포화/불포화 지방산 1.2배 ↑
-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품질특성 검정(품질, 브랜드 평가)
 - 전국 고품질 쌀생산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 품질평가 지원(농식품부)
 - * 전국 9개도에서 출품한 쌀 전업농 출품시료 60점의 윤기치 등 식미분석
 - 외래품종 대체 및 최고품질 쌀 생산 거점단지 브랜드 쌀 평가(식량산업기술팀)
 - * 경기 화성, 충남 홍성 등 10개 지역 브랜드쌀의 단백질 함량, 외관품위 등

[산업 혁신기반 강화]

- 가공용 쌀 특별공급, 품질관리 등을 통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
 - 정부양곡 재고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을 확대*하되, 쌀가공업체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산 물량 추가 공급(국내산 50, 수입산 270 + 추가 17)
 - 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19) 300천톤 → ('20) 317 → ('21) 320 → ('22) 337
 - 품질관리 개선, 보관·가공 지원 강화, 관리체계 전산화 추진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정부양곡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
 - * 안전하고 우수한 보관·도정시설 위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강화
 - **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, 재고 등 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
- 시설 확충·운영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쌀가공업체 역량 강화
 - 쌀가공업체에 시설·개보수, 운영·수매자금을 융자 지원(연 400억원)하고, 운전자금(운영·수매자금)에 대한 1년간 고정금리 인하(25→15%, 최대 1% 인하)
 - HACCP 등 식품 위생 안전(3개소), 품질 개선 분야(4개소) 컨설팅 지원(aT)
 - * HACCP 인증 분야 지원 3개소 중 3개소 당해연도 인증 획득 완료

○ 쌀 가공기술 발굴 및 이전기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 지원

* 쌀 가공 기술이전 실적(67업체 69건) / 사업화 지원(10과제, 944백만원)

** 쌀 관련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소개자료 작성·배포(92건), 설명회 등 추진(7회)

○ 글루텐프리식품 인증, 농식품 마케팅, 원가·구매관리 등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 강화(294명, 전년 比 19.5% ↑)

○ 쌀가공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적격률 정교화*, 표본설계 방식 변경** 등 통계 품질을 향상하고, 통계작성기관 지정(2211)을 통해 국가승인통계 추진기반 마련

* 동일 표본 대상 반복 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도 제고(2년 연속 응답률 58%)

** 전년 대비 식품제조가공업(일반, 쌀가루) 규모 확대(16% ↑)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소(27% ↓)

□ 가공용 쌀 품종·가공 소재화 기술 개발 및 원료곡 단지 조성 확대

○ ‘바로미2(가루쌀 품종)’ 단점 개선을 위한 우량계통 선발* 및 QTL 탐색**

* (저장성) 원료곡·쌀가루의 저장성과 내수발아성이 향상된 우량계통 ‘전주695호’ 선발

** (수발아) 둔감형 육종재료 육성 및 수발아 연관 유전자좌(QTL) 4개 탐색

○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(2건, 고성군·밀양시) 추진* 및 기능성·가공용 특수미 육종을 통한 소재 다양화**

* (고성) 명품 쌀 브랜드 친환경 품종 개발 / (밀양) 신규 우량계통 품종 개발(반찰향미)

** 가공용 진옥찰(밀양 366호) 키다리병 저항성 / 쌀면용 아미면(밀양355호) 고아밀로스 향미

○ 가공용 벼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가공적성 검정 및 품질기준 설정

* ①산업체 연계 냉동 볶음밥 가공적성 검정(풀무원 공동), ②미르찰, 향미 등 가공용 벼 가공방법 개선, ③가공밥 유형별 품질기준 설정(즉석밥, 김밥, 도시락 등)

○ 기술이전 업체 등 산업체와 연계한 가공용 원료곡 생산단지 확대*

* 원료곡 생산단지 : (‘19) 1,113ha → (‘20) 1,651 → (‘21) 2,000 → (‘22) 2,500

[수요기반 확대]

- 미래세대, 청년세대의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쌀 소비 문화 형성 기여
 - 어린이 대상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하여 '쌀 맛나는 학교*'('13~)' 사업과 식량정보센터**('20~) 운영
 - * 쌀 맛나는 학교 : ('21) 103개소 39천명 → ('22) 84개소 41천명(전년 비 5.1%↑)
 - ** 체험 인원수 : ('21) 18,687명 → ('22) 23,955명 (전년 비 28.2%↑)
 - 대학생 대상 '천원의 아침밥('17~)' 사업 운영 통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
 - * 천원의 아침밥 : ('21) 26개교 34만명 → ('22) 28개교 49만명(전년 비 44.1%↑)
 - ** (만족도 조사, '22) 아침밥의 중요성 인식 : 91.8%, 아침밥 섭취 의향 : 87.1%
- 쌀 가공식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수요기반 확대
 -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대전 개최(6.7.~10.), 우수 쌀 가공품을 선정·마케팅 지원하는 품평회(TOP10) 운영으로 쌀 가공산업 소비시장 확대
 - * 산업대전 : 상담매칭 850건, 23,265천\$ (전년 비 77%↑) / 품평회 : 판매전 매출 212백만원
- 매체를 활용한 소비 촉진 홍보로 쌀·쌀 가공식품 소비자 인지도 제고
 - '맛' 중심 쌀 품종과 맞춤형 요리 홍보, 밥맛 좋은 한식당 등 신규 콘텐츠 발굴 및 매체 홍보를 통해 쌀·쌀 가공식품 긍정 인식 개선 기여
 - * 쌀·쌀 가공식품 호감도 : ('20) 74.4 → ('21) 75.2 → ('22) 78.5% (전년 비 3.3%p↑)

2 보완 필요사항

- 국제 곡물가격 급등,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·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떡류(떡볶이) 등 일부 품목은 저가 현지 생산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로 인한 수출 감소 추세
 - ⇒ 수출감소국가 대상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민감도가 낮은 프리미엄 신제품(영유아식, 건강기능제품 등) 발굴·상품성 제고 지원 추진

- 업체별 원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, 원료 중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* 쌀가공산업 성장에 한계

* '22년 가공용 쌀 총소비량(주정용 소비량 제외) 중 정부양곡 소비량 : 55%

⇒ 쌀 가공업체 대상 현황조사를 통해 원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, 민간 가공용 쌀 사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군 발굴·육성

- '22년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물량 중 국내산 쌀 비중(14.8% : 337천톤 中 50천톤)이 낮아 안정적인 국내산 원료 공급체계 구축이 미진

⇒ 업체별 소요 희망 물량, 국내산 사용 확대 필요성, 가공용 쌀 소비 확대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* 지속

* ('23년) 전체 350천톤 중 국내산은 전년 대비 50천톤 증가한 100천톤 공급(비중 : 28.5%)

- 실질적인 쌀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주제가 약하고, 세분화된 소비자층 대상 맞춤형 홍보 수단 개발이 부족한 상황

⇒ '밥맛 좋은 한식당', 소포장 쌀 홍보 등으로 외식 활성화, 1인 가구 증가, 고급품종 선호 등 세분화된 소비자 쌀 소비행동 맞춤 홍보 추진

- 정부 주도 정보 전달 위주의 쌀 및 쌀 가공품 소비 홍보로 인해, 쌀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·확산이 더딘 상황

⇒ 교과과정 연계 쌀 체험교육(화분 재배 등) 및 쿠킹클래스 등 체험형 콘텐츠 강화, 대국민 참여 홍보아이디어 공모로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가속화

- SNS 이외의 매체 홍보(보도자료, 신문, 방송)가 부족하여, 세대별로 균일한 쌀 소비 홍보 접점 마련에 한계

⇒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홍보(보도자료, 기획기사, 방송출출 등) 지원으로 온라인 매체 접근도가 낮은 소비자 대상 홍보 접점 확대

목표

◇ 쌀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

- 매출액 : ('18) 5.3조원 → ('23) 7.0 (연 5.7% ↑)
- 쌀 소비량(주정용 제외) : ('18) 568천톤 → ('23) 630 (연 2.1% ↑)
- 수출규모 : ('18) 89백만\$ → ('23) 170 (연 13.8% ↑)
- 신규 일자리 창출 : ('18) 724명 → ('23) 3,865 (누적)

세부
추진
과제① 미래 유망분야
발굴·지원

-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
-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
-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 집중 지원

② 산업 혁신기반
강화

- 원료의 안정적 공급
 - (구곡)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
 - (신곡) 가공용 쌀 재배단지 관리 체계화
-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
- R&D 및 전문인력 육성 등
- 정확한 통계 및 정보 제공

③ 수요기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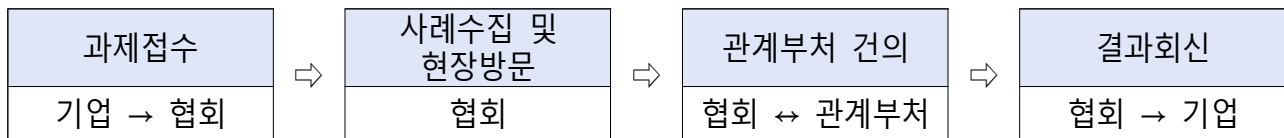
- 군·학교 급식 등 공공수요 확대
- 유통채널 확충 및 소비 홍보

1 미래 유망분야 발굴 · 지원

□ 규제·제도 개선 모니터링 반 운영(쌀가공식품협회)

- 협회 홈페이지 및 「가공용 쌀 수급관리시스템」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, 회원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적극 파악('21년, 3건 → '22년, 4건)
-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에 있어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규제·제도 개선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결과를 관련 기업에 회신

<규제·제도 개선 처리 절차>



□ 쌀 가공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(쌀가공식품협회)

- 국내·외 식품 전문 바이어 DB(13,056명)를 활용하여 쌀가공업체와 바이어를 매칭하고, 온라인 화상회의*를 통한 수출상담회 추진(2회)

* 상담 서비스(상담공간, 통역지원, 사무지원 등)를 제공하고 상담 집계 및 사후관리

** 쌀가공식품산업대전(5.30~6.2/경기 킨텍스) 및 7~9월 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 예정

<수출상담회 추진 절차>



□ 수출 주요 국가별 특화전략 수립·이행(aT)

- (미국) 쌀 가공식품 중 건강기능식품(글루텐프리, 유기농 등)·가정간편식(HMR) 유망상품 발굴 및 홍보로 K-Food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

* 건강기능식품 수요의 확대 추세에 따라 관련 인증취득지원 확대 추진(쌀가공협회와 협업)

- (일본) 한류 활용 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핵심 소비층인 MZ세대 집중 공략 및 지역별 강소 유통업체 및 벤더 공략으로 오프라인 판로 강화
 - * 건강한 음주문화(저도주저칼로리) 열풍에 따른 막걸리 체험행사 및 짬뽕(떡볶이 등) 홍보 강화
- (중국) 세대별·품목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로 신유통채널 발굴
 - * (영유아) 고급 매장 내 프리미엄 쌀과자 체험행사 (MZ세대) 쌀가공식품 레시피 숏폼 콘텐츠 제작, (저도주) 주류전문매장에서 막걸리 등 저도주 판촉 강화
- (신남방) 할랄·간편식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는 유망품목 발굴 및 K-Food Fair, 엑스포, 국경일 행사 등 현지 행사 적극 활용으로 홍보 강화
- (신시장) 현지 식문화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쌀 가공식품을 발굴하고, 신규 거래처 발굴과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지속 추진
 - * (유럽) 프리프롬(무첨가) 식품트렌드에 따라 글루텐프리 쌀과자·가공밥 마케팅 추진

□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협의회 개편(aT)

- 월별 국가별·품목별 수출동향 파악 및 관련 업계 수출정보 제공
 - * KATI(수출입통계시스템) 및 TRASS(한국무역통계진흥원) 시스템 활용
- 쌀 가공식품 공동브랜드(KORECIPE, '21) 상표권 출원을 바탕으로 주요 수출국 내 공동마케팅을 통한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이미지 구축

2 산업 혁신기반 강화

□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 공급(식량정책과)

- 가공용 쌀 소비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천톤 증가한 350천톤 공급, 특히 국내산 공급 확대('22. 50천톤 → '23. 100)
 - 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19) 300천톤 → ('20) 317 → ('21) 320 → ('22) 337 → ('23p) 350
- 정부 재고 관리 및 국내산 쌀 사용 유도를 위하여 국내산 2년구곡 ('21년산)을 특별공급가격으로 적용하되, 수입산은 공급가격 일부 현실화*
 - * 수입산 가공용 정부양곡의 '23년 특별공급가격은 '23.4.1부터 적용('23.1.1~3.31까지 '22년 특별공급가격으로 공급)

- ‘가공용 쌀 수급 관리시스템’을 통해 매월 수급 현황 파악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된 쌀에 대한 부정 유통 여부 점검

*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, 제품생산 현황, 판매처 및 판매량 등 입력·관리

□ 시설·개보수 및 운영·수매자금 지원 지속(식량산업과, 식량정책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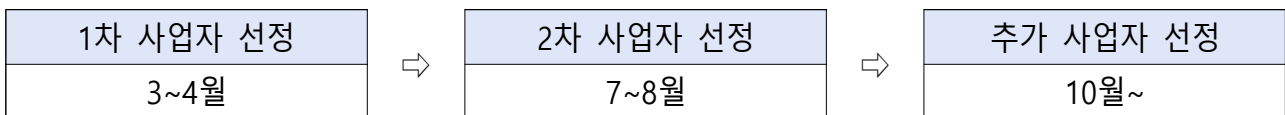
-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노후화된 도정공장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정부양곡 도정업체의 시설자금 융자지원 규모 조건부 확대*

* 도정공장 통폐합의 경우에 한해 시설자금 지원 한도를 15 → 25억까지 상향

- 원자재 가격 상승,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설자금 대출 1년 상환유예 시행*

* `23.1.1일부터 12.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`23.1.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장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을 1년간 유예(`23.1.1일 이후 연체 발생 시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 적용)

<사업대상자 선정 일정>



□ 쌀가공업체 컨설팅 통합 지원(aT)

-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 식품 제조·가공 업체의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지원*을 통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기반 구축

* 컨설팅 지원 분야 : [위생안전] HACCP, GMP지정 획득, 식품안전시스템 구축, [품질개선] 공정개선, 상품 품질개선, 브랜드·포장디자인, 품질인증 등 신규분야 추가 지원

- 컨설팅 분야 확대로 성장단계별 다양한 컨설팅* 추진

* 사전진단 → 단기 역량 제고(단순 문제 해결) → 심층 컨설팅(심화)

□ 가루쌀 등 특수미 품종·소재 개발 및 원료곡 단지 조성 확대(농진청)

- ‘보르미’ 유래 내수발성 우량계통 1 선발 및 ‘바로미2’ 단점보완 우량계통 지적 공시로 가루쌀 재배안정성 향상 추진

- 밀 제분설비를 이용한 가루쌀 건식제분 가루의 분획별 이화학적 특성 분석으로 가공제품군에 최적화된 가루분획 혼합비율 제시

- 쌀 소비 다양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성 특수미 개발 지속 및 지역 특화 및 산업체와 연계한 **가공 전용품종 생산단지 확대(11→ 13개)**

* 산업체 연계/지역 특화 : 한아름찰(CJ브리딩, 1,000ha), 미호(익산시 100ha, 해남군 100ha) 등
원료곡 생산단지 : ('19) 1,113ha → ('20) 1,651 → ('21) 2,000 → ('22) 2,500 → **('23p) 2800**

□ 용도별 품질평가·가공기술 개발로 혁신적 신수요 창출(농진청)

- **가루쌀** 저장 중 품질유지 및 이용성 증진 연구, 가공용 블렌딩 쌀가루의 용도별 품질기준 설정 등 **新시장 창출 기술기반 마련**
- 고품질 벼, 특수미 등 우량계통의 미질 및 식미 등 특성 평가, 지역브랜드 쌀 품질 평가 지원 등으로 **벼 신품종 개발과 연계한 품질 검정 지원**

시기('23년)	주요 추진계획
1분기	- 가공용 쌀 원료곡 품질 평가 및 가공조건 설정 - 쌀+유산균 발효물의 대사성 질환 개선 연구 설계
2분기	- 쌀 유산발효 소재의 대사성 질환 개선 효과 구명 - 가루쌀 이용 활성화 워크숍
3분기	- 가공용 쌀 품종을 활용한 블렌딩 쌀가루의 용도별 품질기준 설정
4분기	- 벼 육종프로그램 연계 우량계통 품질평가 및 선발 - 쌀유산발효물협의회 개최 등 대내외 협력 추진

□ 쌀 가공기술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마케팅 확대(실용화재단)

- 기술소개 및 사업화 성과 자료집을 작성·배포(5건)하고, 국유특허·지자체·민간특허 등 맞춤형 **기술설명회*** 운영(8회)

* 기술설명자료 온라인 상시 노출, 대면/비대면 1:1 상담 진행

□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(쌀가공식품협회)

- 이론 교육의 실무 적용을 높여 변화하는 쌀 소비 트렌드에 최적화된 제품 생산을 위한 **현장·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확대**

* 식품 푸드트렌드 분석(빅데이터, 선도기업 벤치마킹), 가루쌀 활용 디저트 만들기 교육 과정 신설

** 연도별 교육인원/교육시간 : ('20년) 386명/5,923h → ('21년) 246/4,641 → ('22년) 294/4,393

□ 쌀가공산업 현황조사 추진(쌀가공식품협회)

- 최신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한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표본 설계로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국가승인통계화 추진

<국가승인통계 추진 일정>

조사표 개선	⇒	승인통계 신청·대응	⇒	사업체 실지 조사	⇒	결과 분석 및 발표
2월		3~5월		5~7월		8~10월

3 수요기반 확대

□ 미래세대 대상 맞춤형 쌀소비 문화 형성 지원(농정원)

- 초등학생 대상 효과적인 쌀 교육을 위해 체험·활동 위주의 교육 콘텐츠 보완* 및 우수사례 선정·확산 도모

* 들녘경영체 연계 벼 재배키트 보급, 학년별 재배일지 등 활동지 콘텐츠 다양화

- 유·초등 어린이 대상 쌀 직업체험관(식량정보센터) 내 실습 및 교육 콘텐츠 현행화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

* 포토존, 정보 게시판 등 농업조경 전시공간 구성, 어린이 맞춤 쌀 활용 쿠킹클래스 등

-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학교·일반식당 운영을 확대하고 '도시락 포장'을 병행하여 아침밥을 제공하고, 대학생 활용 홍보 추진

* '천원의 아침밥' 식수인원 : ('22) 28개교, 486,248명 → ('23p) 40개교, 640,000명

□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으로 소비시장 확대(쌀가공식품협회)

- 쇼핑몰과 연계한 MD 평가 등 판매 실적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쌀 가공식품 대표 제품(TOP10)을 선정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추진

- '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'(킨텍스)과 연계 개최하여 국내·외 바이어를 유치하고, 온라인전시관을 활용하여 제품 정보를 O2O 홍보

□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(농정원)

- 고품질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'밥맛 좋은 한식당' 홍보* 확대, 단체·유통업체를 연계한 쌀 품종별 식미 특성 정보 확산** 추진

* 국민체험단(4월), 전문평가단(6월)을 구성하여 '밥맛 좋은 한식당'을 선정하고, 선정명패를 전달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 창출

** 식품외식산업과, 한식진흥원, 농협과 연계하여 밥맛 관련 평가 지표 개발(3월),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(10월) 등 홍보 추진

- 세분화된 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 '쌀 아이디어 공모전' 신규 추진*으로 소비자 주도 콘텐츠 생산 기반 마련

*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(11월)하여 관계기관, 농협, 지자체,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 홍보자료로도 활용

- 방송, 신문, SNS 홍보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쌀소비 촉진 홍보로 쌀의 영양학적 가치 확산

* 소비자 인식,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온라인 매체(SNS, 유튜브 등) 홍보를 강화하되, 소비자군별 균일한 홍보 접점 마련을 위해 방송·신문 매체의 적극적 활용도 병행 추진

- 쌀 관련 기념일*, 마라톤 행사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홍보로 민·관 협업 홍보기반을 구축하고, 가루쌀 등 쌀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

* 백설기데이(3.14), 쌀의 날(8.18), 러브미마라톤(10월), 가래떡데이(11.11) 등

V

추진 일정

- 2023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 알림(3월)

- 2023년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(3월~)

- 추진 주체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제출(~12월)

- 추진실적 분석 및 보완을 통해 2024년 시행계획(안) 마련('24.1월)

1. 수립 배경

- 쌀 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*하고 있는 쌀 소비를 **활성화** 하는 동시에 HMR, 글루텐 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

* 1인당 연간 밥쌀용 쌀 소비(kg) : ('88) 122.2 → ('18) 61.0

- 그간 법률제정('11), 1차 쌀가공산업 육성계획('14~'18) 수립·시행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규모가 **외형적으로 크게 성장***

* ('13→'17) 매출액 4.1조원 → 4.9, 쌀 소비량 471천톤 → 492, 수출액 56백만불 → 72

- 반면,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 개발, 신시장 창출 등의 **혁신성장 동력 부족**

* 「중소기업법」 상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미만 업체 비중이 99.7%

- 쌀가공산업의 **규모화·전문화**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, R&D 및 재정·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

2. 목표 및 추진방향

① [목표] 쌀 가공산업의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

구분	('13)	'18	'23	비고('18→'23)
■ 매출액(조원)	(4.1)	5.3	7.0	연 5.7% ↑
■ 쌀 소비량(천톤)	(471)	568	630~670	연 2.1~3.4% ↑
■ 수출규모(백만불)	(56)	89	170	연 13.8% ↑
■ 신규 일자리(명)	(0)	724	3,865	연 773명 ↑

* 단, 쌀 소비량 중 주정용은 제외

② [추진방향] 산업 내실화를 위해 산업혁신 기반 강화 및 소비처 확대

-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·인력 양성·투자 확대 등 **산업혁신 기반 강화**
- 유망 품목 발굴, 소비 창출, 수출 등을 통해 쌀 가공제품의 **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**

3. 주요 추진과제

① 미래 유망분야 발굴·지원 ⇨ HMR·쌀가루 집중 육성 및 수출지원

- (유망분야 육성) HMR 등 유망분야에 대한 R&D, 업체 시설 지원 확대('18 : 한도 50억원 → '23 : 100), 시장동향 제공(연 1회, 정기보고서)
 - 비식용 분야* 특별 공급('20)을 통해 혁신적 신수요 창출 지원
 - * 쌀 빨대(세계 플라스틱 시장규모 431조원), 라이스클레이(슬라임 대체) 등
 - '규제신고센터' 운영(신규, '19~)을 통해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
- (쌀가루) 대체재(밀가루)와 가격 경쟁이 가능한 건식 쌀가루 특별 공급('20), KS 규격 제품 생산을 촉진*하여 산업 기반 확대
 - * KS 기준 강화(전분손상도 축소 등), 쌀가루 등급제('22) 시행 등
- (수출) 미국·유럽은 글루텐프리 인증제 도입('19~), 동남아는 한류스타 연계 홍보 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
 - 수출 집중 품목(쌀과자, 떡류)의 수출 과정상 애로(장기 상온 유통 등)를 해결할 수 있도록 '수출연구사업단' 지원(과기과 협조, '20~)

② 산업혁신 기반 강화 : 원료 공급체계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- (원료 공급)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(연 2.1% ↑)하되, 정부양곡 의존도는 낮추고('18 : 45.8% → '23 : 38.8), 민간조달의 효율성 제고
 - (정부양곡) 중장기 수급계획을 제시(공급량 예측 가능성 제고)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,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양곡 도정평가제 도입('20)
 - (민간조달) 생산-유통-가공 계열화(들녘경영체·RPC 연계 등), 민간 가공용 재배단지의 체계적 관리·육성('19 : 35개 → '23 : 56) 추진

- (시설·경영개선) 설비투자에 대한 **융자 지원**(연 400억원)과 병행하여, 경영 노하우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**컨설팅 지원**(연 80건)
 - 쌀 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(연 200명)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('19, 신규)
- (R&D) 농진청은 KS 고도화 등 **기반기술 개발***에 집중하고, 민간 기업은 직접 제품 품질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**R&D 바우처 지원**(연 19억원)
 - * 제품 맞춤형 전용 품종 개발 5건, 쌀가루 KS 범위 확대(건식 추가, 등급제 등)
- (인증제) 쌀 가공기업 **인증제 도입**(‘21~)을 통해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정책의 기반 마련
- (통계 제공) 기업의 정보 수요를 반영한 ‘쌀 가공제품 통계 정보 지도’ 구축(‘23, aT 또는 관련 협회)

③ **수요기반 확대** ⇨ **학교·군대 등 공공 급식 수요 확대, 홍보 강화**

- (공공수요) 미래 세대가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쌀가공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
 - (학교) 쌀 가공식품 급식을 지속 추진하고,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교육도 병행 추진(초등학생 대상, 연 13만명 내외)
 - (군대) 군 급식 내 쌀 가공식품의 종류를 확대(‘18 : 7종→’23 : 9)하고, 쌀 가공제품의 배급 횟수 등 증대
- (홍보강화) 쌀 가공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바이어 대상 산업대전 개최, 우수 제품 유통채널 입점 등 **국내외 판로 확충 지원**
 - 쌀·쌀 가공제품에 대한 영상 공모전, 라디오 사연 코너 등 참여형 캠페인 운영을 통해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